

# 농촌 주거환경 정비 정주여건 개선 자원순환단 선도모델사업 순항

## 순창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국비 33억원 확보

순창군이 농식품부가 추진한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억원을 확보해 농촌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영일 군수

군에 따르면 쾌적한 마을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순창군 풍산면 대가마울과 금과면 매우마을 2곳이 선정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공모 신청을 준비해 주민 설명회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설

명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다한 결과 풍산면 대가와 금과면 매우 2개 마을이 동시에 최종 새뜰마을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영일 군수는 취임 이후 농촌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뜰마을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끊임없이 소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전년도 3개마을(팔덕백암, 유등외, 적성임동)이 연속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산 대가마을은 방치된 공폐가가 16호, 슬레이트 비율이 58%,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80%에 달하며, 금과면 매우마을 역시 공폐가가 5호, 슬레이트 비율

이 49%,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78.4%에 이르는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4년 동안 풍산면 대가마을 사업비 약 23억, 금과면 매우마을에 사업비 약 20억을 투입해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마을 환경개선, 휴먼케어 등을 추진할 계획,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 배경에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였다"면서 "사업공모에 힘썼던 것처럼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순창군의 슬로건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 여건을 개선해 정주인구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노인일자리·환경 두 마리 토끼 잡아

순창군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단 선도모델사업이 일지러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순창군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발족한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확보한 국비 1억9,200만원과 군비 2억5,6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4,8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관내 참여 희망자 중에서 선발된 100명의 참여자는 5개월간 사용하고 버린 음료수 페트병을 수거하고 이렇게 수거된 페트병은 플레이크(작은 조각)로 파쇄되어 업체에 납품된 후 실로 가공되어 의류로 재탄생하거나, 고품질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의 안전바 등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대표 자원순환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수거된 관내 페트병이 800kg에 달했으며, 당초 수거된 페트병을 보관하던 공간이 부족해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청년문화센터 뒤편의 부속 창고에서 수거부터 보관, 세척, 파쇄까지의 과정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탄소 중립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제안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원순환단 사업이 10월까지 한 시적으로 추진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순창군의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선도모델 사업량 100개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2,933개의 노인일자리 운영하게 되어 민선 8기 3,000개의 노인일자리 운영하겠다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수를 확보해 순창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임실군, 임도사업 최우수 군 선정 쾌거

### 사업평가 작업임도 1위·간선임도 2위

임실군 임도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과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4년 임도사업평가(2023년 신설임도)에서 작업임도 1위와 간선임도 2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23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에 현장평가와 자료평가를 통해 실시됐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임도는 임실군에서 발주하여 운영한 운암리 일원에 개설한 운암~운중 작업임도 0.4km 구간과 운암면 용운리 일원에 개설한 청운~지천 간선임도 1km 구간이며, 임실군 산림조합이 시공했다.

해당 구간은 임도의 계획수립 적정성, 시행 과정 적정성 등 자료평가 항목과, 절·성토 사면과 노면의 안정성 및 배수시설의 적정성, 환경 친화성 등 현지 평가 항목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실=진홍영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농기센터, 스마트 강소농 육성 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2024년도 스마트 강소농 육성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농업기술, 스마트 경영, 스마트 마케팅 3가지 과목과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총 48시간 진행, 스마트 농업을 이해하고 데이터활용과 스마트팜의 구성이 원리를 알아보는 스마트 농업기술 부분과 스마트팜 경영관리의 스마트 경영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 마케팅 부분으로는 요즘 매체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Chat 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기획법, AI도구를 활용한 마케팅 글쓰기·로그·사업계획서 작성, 네이버·페이스북 광고 기법, 유튜브 마케팅·소셜물 등록과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될 예정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농업인에 한하여 7월 15일까지 20명 선착순 모집하고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2층 인력육성계나 메일(shs3514@korea.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남원퀵스타트 사업단, 맞춤형 취업 지원

남원시와 남원퀵스타트사업단은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취업지원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를 1:1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채용대행서비스는 구인 기업의 직원 채용 비용 절감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모집-접수-선발(최종 채용에 기업에서 결정) 등의 절차를 사업단에서 직접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동행 면접은 구직자에게는 면접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구직역량을 단기간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으며, 구인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여 채용함으로써 구인 효율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특히 구직자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면접 기술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취업 성공을 지원하고,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 행안부 방문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 지역현안·재난대비 사업 신속 추진 위해 요청

남원시가 다각적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지난 2일, 지역현안 및 재난대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행안부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최근 기초지자체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주사업으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10억원) △생활체육시설 주(主)출입로 위함도로 개선사업(7억원) △요천 데크 인도교 긴급 보수공사(7억원) △도통 공원 내 화장실 화재 발

생에 따른 긴급보수(3억원) △남원시 BMS 및 BMS 구축사업(6억원) △교동 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시설물 개선사업(5억원) △요천 2교 교면 사고위험 지역 정비(10억원) △남원 산내부운 노후 양거교량 교체(5억원) △교동산 국민관광지 위험 교량 교체(4.5억원) 등 총 9건 57억 5천만원을 요청했다. 건의사업은 시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 중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또한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총사업비 688억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 활성화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 시장은 "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비롯 국가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칙권,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원을 건의하는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요천 통합하천사업 친수시설 대상지 현지 확인

### 최경식 남원시장·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합동 점검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영산강유역환경청 박연재 청장을 남원으로 초청, 3일 '요천 통합하천사업' 친수시설 대상지 현지 확인과 홍수취약지구를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비 250억원을 투입 △춘향교~승사교 좌안에 호안 재설치 및 쉼터 조성 △승사교 하류 시민 공

원과 파크골프장을 위한 둔치조성 △신촌동 인도교 건너편 필터기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 시장은 유 청장에게 사업 대상지 요천 통합하천사업을 통해 연계되는 광한루원 주변과 합파우 아트밸리 전방에 대한 미래 지향적 청사진을 설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적으로 건의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시설계획에 착수, 현장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검토를 하천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동림교 일원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번 취약지구 점검이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